

도/서관/탐/방



과거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관

과천의 교육원길에 위치한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 사료관. 역사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으면서도 그리 실감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나 일본과의 역사분쟁이 심화되는 것을 보면서 새삼 역사와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 역사자료를 수집·정리·편찬·보존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를 방문했다. 사료관의 김원기 사서와 윤진원 사서가 초행길인 기자들을 입구까지 마중 나왔다. 나무가 우거진 도로를 지나니 위원회 간판이 보였다. 입구에 조선시대 실록을 보존한 사고(史庫)를 연상케 하는 기와건물이 보였고 그 옆으로 있는 소담한 연못과 정자가 방문객의 마음을 흠뻑인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직원들에게 인기 많은 공간이라고 한다.



사료관 전경 ▲



▲ 사료관 개관식 참석 내빈과 함께한 박한남 자료정보실장

연못을 지나니 우측으로 새로 건축한 사료관이 보였다. 사료관은 국사관 서고의 수장 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지난 2003년 1월 기초설계를 시작해 2004년 3월 기공식 후 3년만인 지난 봄 개관하였다. 사료관 1층에서는 위원회가 걸어온 길을 전시하고 있었다.

전시를 잠시 둘러보고 우선 3층 사무실로 올라갔다. 마침 박한남 자료정보실장이 자리에 있어 인사를 하고 사료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 오랫동안 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일들을 몸소 체험하고 사료관 가꾸기에 심혈을 기울였던 김원기 사서의 설명과 도움으로 직접 사료관을 둘러보았다.

☁ 사료관의 개요와 특징

사료관은 건축면적 862.50m²에 지하 3층, 지상 3층 건물이다. 연면적은 9,629.90m²로, 그 중 자료를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은 전체 건물의 70%에 이르는 6,820.54m²이다.

사료관 1층 왼쪽에는 중앙대출실과 열람실, 소독실과 포쇄실이, 오른쪽에는 정책자료실, 위원회간행물실, 멀티미디어실이 있고, 2층에는 학술논문실, 세미나실, 참고자료실, 연속간행물실이, 3층에는 국제회의실, 회의실, 수서실, 정리실 등이 있다. 지하 1층에는 일반자료실이, 지하 2층에는 마이크로필름실, 고서실, 고문서실, 대마도종가문서실이, 지하 3층에는 수집자료실, 한시자료실, 신문자료실, 개인문고실, 특수자료실이 있다.

1층 소독실에는 좀·해충에 의해 심하게 훼손된 자료와 고전적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소독기를 설치했다. 소독기를 이용해 1회 300여 책씩 월 4회 소독을 하고 있다. 또 고전적 자료에 쌓여 있는 먼지와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포쇄기도 설치했다. 정책자료실은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독도·간도문제, 고구려사 문제 등 당면한 역사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모아 비치하고 있다.

지하 2층에는 대마도종가문서, 고문서, 병풍 및 액자 등 귀중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서계장, 고문서장, 병풍장, 액자장을



▲ 사료관 1층 전시실



▲ 김원기 사서

오동나무로 특별 설계 제작함으로써 자료보존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지하서고는 항온·항습시설이 설치되어 최적의 조건에서 자료를 보존하고 있다. 또한 화재로부터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청정 소화기 이너젠(질소 52%, 아르곤 40%, 이산화탄소 8%) 자동소화설비 시스템을 설치했다.

지하 3층은 지방에 분산되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고서·고문서 및 책판 등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한편 연구에 제공하고 있다. 개인문고로는 손훈문고, 용전문고, 신재문고, 성고문고, 녹촌문고가 있으며, 이와 별도로 김진구, 윤완식, 박광모, 노상추자료, 진주강씨의 위탁자료 등이 수탁자료실에 있다.

소장자료 현황과 직원

위원회는 소장자료를 크게 고전적(古典籍), 일반도서, 국외수집자료, 국내수집자료, 시청각자료로 구분하고 있다. 고전적은 고서, 고문서, 대마도종가문서로 전체자료의 29%를 차지한다. 일반도서(단행본, 개인문고, 한시자료, 특수자료)는 한국십진분류표(KDC)에 의거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유럽 등 나라별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자료를 발굴해 마이크로필름 및 칼라 스캔 촬영을 하고 있으며 시청각자료(마이크로필름, 사진자료, 유리필름, CD-ROM,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 기타) 등도 갖추고 있다.

위원회 소장자료 중에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집한 경성지방법원 재판기록,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검거 투옥되었던 인사들의 신상카드, 주한 일본공사관 기록 유리필름 원판, 2004년부터 위탁받기 시작한 수탁자료, 개인문고, 귀중자료, 고서, 대마도종가문서, 고문서, 사진자료, 수집자료 등 중요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소장자료는 2007년 3월 현재 약 40만 장서에 이른다(유형별 소장현황은 p.72 표 참조). 소장자료에 대해서는 해외수집자료, 마이크로필름자료, 전자도서관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으며 이 외에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의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 대마도종가문서



▲ 병풍 및 액자 귀중자료



▲ 개인문고실

[소장자료 현황] (2007년 3월 현재)

구 분		내 역	
소장자료	고전적	귀중본	116종 197점
		고서	20,615권
		고문서	20,189점
		대마도종가문서	28,741점
	개인문고	손훈문고	933점
		용전문고	1,293권
		신재문고	1,203권
		성고문고	6,998권
	녹춘문고	약 11,500권	
수탁자료		11,718책(점)	
수집자료	국내	131,631장	
	국외	3,297,633장/3,231롤	

위원회가 소장한 자료는 역사분야 전공학자와 관심있는 일반인들, 대학 및 대학원생,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한다. 이용자들을 돕는 사서는 모두 4명인데 이 중 1명이 전자자료관구축팀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 사료관에는 3명의 사서가 사료관 이용서비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특별소장자료

1) 대마도종가문서

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대마도종가문서는 원래 대마도종가문고의 일부이다. 1926년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가 조선사를 편찬하기 위해 대마도종가로부터 사들인 것인데, 광복 후 국사관이 설립되면서 이를 접수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다. 조선사편수회가 당시 대마도종가문서를 구입한 것은 한·일 관계사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이들 자료는 1926년 5월 동경으로부터, 동 7월 대마도 이즈하라로부터 각각 방화설비를 갖춘 조선사편수회 서고로 옮겨졌다. 이 때 수사관 나카무라 히데타카가 입회하기 위해 서울에 왔다고 한다. 현재 소장하고 있는 대마도종가문서는 기록류 6,592책, 고문서 11,200점, 서계 9,442매, 회도 1,485점, 인장 22개 등 총 28,741점이다.

대마도종가문서의 기록류 목록집은 1990년에 1권이 간행되었고, 서계목록집은 1991년부터 1994년 사이에 1-5권이, 고문서 목록집은 1995년과 1996년에 1,2권이 간행되었다. 대마도종가문서는 일본어 초서로 쓴 것이어서 전문가가 아니라면 읽기에 어렵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서해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우선 기록류 자료 중에서도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현안을 시대별 주제별로 정리한 「분류기사대강」을 탈초하여 대마도종가문서 자료집으로 간행하고 있다.

과천의 교육원길에 위치한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 사료관. 역사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으면 서도 그리 실감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나 일본과의 역사분쟁이 심화되는 것을 보 면서 새삼 역사와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 역사자료를 수집·정리·편찬·보존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를 방문 했다. 사료관의 김원기 사서와 윤진원 사서가 초행길인 기자들을 입구까지 마중 나왔다. 나무가 우거진 도 로를 지나니 위원회 간판이 보였다. 입구에 조선시대 실록을 보존한 사고(史庫)를 연상케 하는 기와건물이 보였고 그 옆으로 있는 소담한 연못과 정자가 방문객의 마음을 흠친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직원들에 게 인기 많은 공간이라고 한다.

연못을 지나니 우측으로 새로 건축한 사료관이 보였다. 사료관은 국사관 서고의 수장 능력이 포화상태 에 이르자 지난 2003년 1월 기초설계를 시작해 2004년 3월 기공식 후 3년만인 지난 봄 개관하였다. 사료 관 1층에서는 위원회가 걸어온 길을 전시하고 있었다.

전시를 잠시 둘러보고 우선 3층 사무실로 올라갔다. 마침 박한남 자료정보실장이 자리에 있어 인사를 하고 사료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 오랫동안 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일들을 몸소 체험하 고 사료관 가꾸기에 심혈을 기울였던 김원기 사서의 설명과 도움으로 직접 사료관을 둘러보았다.

사료관의 개요와 특징

사료관은 건축면적 862.50m²에 지하 3층, 지상 3층 건물이 다. 연면적은 9,629.90m²로, 그 중 자료를 보존할 수 있는 공간 은 전체 건물의 70%에 이르는 6,820.54m²이다.

사료관 1층 왼쪽에는 중앙대출실과 열람실, 소독실과 포쇄실 이, 오른쪽에는 정책자료실, 위원회간행물실, 멀티미어실이 있 고, 2층에는 학술논문실, 세미나실, 참고자료실, 연속간행물실 이, 3층에는 국제회의실, 회의실, 수서실, 정리실 등이 있다. 지 하 1층에는 일반자료실이, 지하 2층에는 마이크로필름실, 고서 실, 고문서실, 대마도종가문서실이, 지하 3층에는 수집자료실, 한시자료실, 신문자료실, 개인문고실, 특수자료실이 있다.

1층 소독실에는 줌·해충에 의해 심하게 훼손된 자료와 고전 적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소독기를 설치했다. 소독기를 이용해 1 회 300여책씩 월 4회 소독을 하고 있다. 또 고전적 자료에 쌓여 있는 먼지와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포쇄기도 설치했다. 정책자 료실은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독도·간도문제, 고구려사 문제



▲ 마이크로필름 사본용 보존장

▼ 마이크로필름 원본용 보존장





▲ 동성행렬도(정사부분)



▲ 포쇄실

▲ 소독실



▲ 유리필름

년 8월 1일 지정), 해동제국기, 이승만 전 대통령 흉상, 이승만 전 대통령이 올리버 박사에게 준 친필 휘호, 대마도종가문서 중 통신사행렬도, 부산초량화관지도, 대마도종가문서 복식(정장, 향응복식)도 보관되어 있다.

3) 보존환경 개선 및 포쇄

2000년 10월 10일 자료보존 환경 개선 방안 기본계획을, 10월 25일 자료보존 및 용기 교체 기본 계획을 각각 수립했다. 10월 30일에는 2천만원 예산을 들여 귀중자료 9점, 대마도종가문서 회도 25점, 재판기록 500책, 유리필름 452개를 담을 수 있는 오동나무 상자를 제작했다.

위원회 장서 중 29%가 고전적으로 정기적 포쇄(책을 햇빛에 말리거나 바람을 쐬어서 습기를 제거하는 것)를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자료 보존관리보다는 열람실 등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보존 측면에서 중요한 포쇄에 큰 비중을 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위원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지만 새로 증축된 사료관 건물에 포쇄실을 만듦으로써 정기적으로 포쇄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서고 청소 및 온·습도 장비를 설치했으며, 소독방법을 개선하고 자료 복원실과 제본실을 운영하는 등 자료보존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자자료관 시스템 구축 및 향후 계획

국내외에서 수집한 사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을 준용한 목록기술표준과 기록학적 원칙에 입각한 계층분류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 전자자료관 시스템 구축팀을 발족하였다.

향후 사료관에 마련된 전시공간을 역사체험관으로서의 전시실로 개관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사료관을 돌아보며

위원회 사료관을 2004년 기공식 후 3년 만에 완공했다. 여타 다른 도서관들을 둘러볼 때하고는 달리 규모가 방대해 어디서부터 어디까

지 봐야 할 지 한참 고민했었다.

그러나 사료관에 애정이 많으신 박한남 자료정보실장과 노련한 전문가 김원기 사서의 도움으로 사료관을 둘러보면서 많은 의문점들이 풀렸고, 연이어 감탄사만 내뱉었다. 그 큰 규모의 사료관을 자료정보실장과 사서 3명이 꾸러나간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이용자는 하루에 20여명 정도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자료 이용 서비스와 자료 보존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귀중 장서들을 잘 보존하는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료관 증축은 그동안 자료정보실장과 사서들의 숙원사업이었던만큼 직원들은 힘을 합쳐 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해결하려고 애썼다고 한다.

존재조차 낯선 유리필름을 비롯해 신기하고 귀중한 자료들을 너무 많이 본 탓에 가슴이 뿌듯하다. 특히 보존처리 방법을 연구하고 실행하고, 서계장, 고문서장, 병풍장, 액자장을 오동나무로 특별 제작하는 등 자료의 보존환경을 크게 개선한 점 등은 놀라웠다. 또한 이 모든 작업에 사서가 직접 참여했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특히 대마도종가 문서실의 자료보존 방법과 서류보관 시에도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상자에 겹겹이 넣고 손쉽게 풀 수 있도록 끈으로 묶어놓은 점, 모바일 윗부분에 스탠드를 설치해 자료를 찾기 쉽도록 한 점 등은 다른 도서관에서도 충분히 도입할 만한 본보기다.

우리가 흔히 “역사는 미래를 여는 창”이라고 말한다.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보존하는 일은 지금처럼 역사왜곡과 관련된 국제 관계가 매우 민감한 시기에 있어 더욱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앞으로 위원회 사료관은 역사 사료 수집과 보존, 연구, 편찬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역사자료의 수장고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자사료관 시스템 구축사업이 잘 추진되어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역사자료 수집 및 보존과 사료관의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글 : 심효정, 사진 : 심효정, 최인경)



▲ 자료실 이용 모습



▲ 소장 고문서 이용 교육



▲ 수집자료 보존관리 모습